

# 마야 앤젤로우: 열림의 기적

김 명 옥\*

현재 미국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흑인작가 마야 앤젤로우(Maya Angelou)는 그녀의 타고난 다양한 재능을 살리면서 활동해 온 다재 다능한 예술가라는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용감하게 공개하는 열림의 '자아 표현'(self-expression)을 통해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인들과 차별화 되고 있다. 마야는 시인과 교수, 강사로 주로 활동하고 있으나 그녀의 활동은 댄서, 가수, 작곡가, 기자, 연출가, 영화감독, 인권 운동가로서 다방면에 걸쳐 펼쳐졌으며 특히 연설 및 강연 등으로 대중에게 미치는 그녀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뛰어 넘고 있다. 미국의 문학 풍토에서 1960년대 이후 많은 작가의 창작 경향이 자신의 삶을 문학의 소재로 삼아 그것을 고백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고백시인(confessional poets)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나 마야의 경우는 그러한 부류의 문인들과도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예술 활동이 그녀의 인간적인 성숙의 과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그녀의 삶의 체험은 시로 혹은 자서전으로 기록되거나 아니면 다른 예술 활동의 형태로 표출됨에 따라 마야라는 한 인간은 마치 옛 자아의 허물을 벗는 의식을 치르듯이 보다 성숙한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는 열림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토록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오늘의 그녀를 탄생시킨 요인들 즉 흑인의 민족성과 역사적인 특수성 그리고 그녀의 개인적인 성품과 미국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기독교 신앙과 문학의 글쓰기 작업들이 한데 어우러져 어떻게 마야 개인을 자칫 패배와 좌절 속에 가둘 수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 오늘의 그녀를 낳을 수 있었는가를 조명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고찰은 한 개인이 어둡고 힘든 삶의 장벽들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는

---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문학전공 교수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하겠다. 왜냐하면 마야의 경우 백인 사회에서 흑인 여자로 태어났으며 부모가 이혼한 결손 가정에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성장하였고 8세 때 어머니의 남자친구에 의해 강간당했으며 16세에는 사생아를 낳은 미혼모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려움 뿐 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삶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벽들을 허물면서 타인에게 소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시와 강연 등으로 끊임없이 쏟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진흙 같은 그녀의 인생을 금강석처럼 아름답게 변모시킨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논문에서는 주로 그녀와의 대담(interviews)과 시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야에 대한 이러한 조명은 미국이라는 지역에서 사는 한 시민의 삶의 씨줄과 날줄들이 어떻게 얽혀서 인생을 빚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양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야는 1928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마야가 3살 때 이혼한 베일리와 비비안 존슨(Bailey and Vivian Johnson)의 흑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헤어져 사는 부모와 아칸소(Arkansas)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외할머니 사이를 오가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더욱 불운한 일은 8세 때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아픔으로 거의 5년간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16세에는 사생아 아들을 낳아 혼자서 아이의 육아를 맡아야 했다. 생활을 꾸려가기 위한 방편으로 마야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가수와 댄서로 그리고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매춘 업에도 관여하게 된다. 다행히 타고난 흑인 특유의 낙천적인 성품을 지닌 마야는 노래와 춤 그리고 뛰어난 언어 구사력의 재능을 살려 브로드웨이의 연극 단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유럽 20여 개의 나라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는다. 후일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마야는 연극과 영화 그리고 T. 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때로는 연출가로 혹은 작곡가, 감독, 드라마 각본 작가로 혹은 배우로 활약한다. 한 때는 남편을 따라 이집트와 아프리카로 건너가 자기 조상들의 뿌리를 알게 되었으며 그곳 신문의 편집인과 기자로 그리고 대학의 행정요원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특히 『뿌리』(The Root)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할머니 역할로 조연 배우 토니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Martin Luther King, Jr)와 손을 잡고서 흑인 해방을 위한 민권 운동가로도 활약하는가 하면 아칸소

주의 스템프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미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인 그녀는 영어를 포함한 6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면서 유명한 대학과 모임에 초청 강사로 다니고 있으며 노오스 캐롤라이나주의 웨이크 퍼레스트 대학(Wake Forest University)에서 미국 학을 가르치는 평생 교수로 일하고 있다. 특히 마야는 『내가 죽기 전에 시원한 물을 좀 주세요』(Just Give Me a Cool Drink of Water 'Fore I Diiie 1972)라는 첫 시집으로 풀리처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0여권의 시집과 6편의 자서전을 써서 수많은 상을 받았다. 1960년대에 콜롬비아대학에서 강사로 출강한 것을 계기로 명예학위를 받았고 현재까지 미국의 30여 개 이상의 유명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자작 축시를 낭송하는 시인으로 뽐혀 가히 미국을 대변하는 대중적인 명예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그만큼 그녀의 활약과 업적은 눈부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마야의 삶은 불행과 행운이 마치 씨줄 날줄처럼 엮여져 선명한 명암의 대조를 이루는 피륙과 같은 드라마의 여정이었다. 그렇다면 마야는 과연 그녀의 탄생과 성장과정의 어두운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하여 그토록 아름다운 변신을 할 수 있었을까? 한 때 매춘의 일에도 관여했던 치욕스런 과거의 그녀가 어떻게 이제는 세계의 대통령들의 정상회담에 빌리 그래함(Billy Graham)목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초청을 받아 격려사를 발표하는 시인(Tanner Lecture)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그녀의 삶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요인으로 추려서 살펴 볼 수 있겠다.

우선 우리는 그녀의 시와 자서전 쓰기의 문학 활동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마야의 문학 수업은 그녀가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강간당한 후 그 남자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말을 못하던 거의 5년 동안 오직 문학 작품에 파묻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글쓰기의 훈련기간을 가지면서 이루어졌다(Conversations 93). 그 기간에 타인과의 언어적인 소통을 거부하던 그녀에게 유일한 외부와의 소통은 주로 글쓰기였으며 실제로 닫힌 입을 열게된 계기도 그로 인해 마련되었다. 그 당시 입을 열지 않는 마야에게 문학 도서를 빌려주고 말 대신 글로 의사 소통을 하도록 도와준 이웃 아주머니 플라워즈(Mrs. Flowers)의 도움으로 시작한 글쓰기는 그녀를 그 암흑의 감옥에서 내면적으로 탈출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었으며 그 첫 결실은 그녀의 첫 자서전인 『나는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안다』(I Know Why The Caged Bird Sings 1970)로 나타났다. 이 책에서 마야는 당시 자신의 어두운 환경적 제약들을 어떻게 극복하였으며 그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가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스미스(Sidonie Ann Smith)가 "...그녀를 가두고 있던 환경에서 스스로 탈출을 시도하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그로부터 탈출하는 최초의 어린 시절의 장을 열고 있다"고 언급한대로 이 자서전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의 카타르시스 적인 정화 역할을 한 셈이다. 실제로 시를 포함한 마야의 춤과 노래 등의 예술 활동은 그녀의 잠재한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건디기 힘든 삶의 아픔과 그로 인한 내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가의 경우 글쓰기가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통해 개인의 정신적인 아픔을 승화시키거나 간접적인 탈출의 효과를 얻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인 마야의 경우 글쓰기는 자신의 아픈 과거로부터 해방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마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시위의 필요성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킹 목사는 "종기를 낮게 하려면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그대로 종기를 열어 자연적인 치유의 약인 공기와 빛을 받아야 치료되듯이 한 나라의 불의도 비록 그러한 노출로 긴장이 커지지만 인간의 양심이라는 빛과 대중의 의견인 공기에 노출되어야 한다"(Letter from Birmingham Jail)고 진단하여 비폭력 시위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녀의 경우에도 한 개인의 그리고 한 집안의 굴욕적인 사건들이라 할 수 있는 강간 사건과 사생아의 출산,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던 어린 시절의 아픔과 수치의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용기를 가짐으로써 그로부터 치유 받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개인의 삶의 공개 작업은 그후에도 계속되어 첫 작품이후 5권의 자서전을 발간하였으며 하나의 책이 출판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변모된 모습으로 탄생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더구나 클라우디아 테이트(Claudia Tate)와의 대담에서 "당신은 과거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나는 잊어버린다. 나는 완전히 작품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Conversations 154)는 마야의 대답처럼 출판한 작품을 잊어버리는 그녀의 독

특한 습관 때문에 그러한 일은 더욱 용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어두운 그늘 내지는 악마(그녀의 표현)로부터 해방되는 자서전 쓰기의 반복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새롭게 탄생한 그녀의 마음에는 아픈 경험을 자기로부터 비운만큼 더 이상 그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필요도 없기에 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귀중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26).

그녀는 종종 '재능'(talent)을 '전류'(electricity)에 비유한다. "나의 재능을 연구하는 것은 나의 의무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는 마야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곧 전류와 연결되는 일이기에 연결만 되면 "인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14; 154)고 마야는 생각한다. 바로 그녀에게 시야말로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재능의 하나이기에 대중들이 자신을 시인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만큼 그녀에게 시는 언어의 힘을 빌어 개인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적인 아픔과 장애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매 순간마다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행위까지 내포시킨다(112). 예를 들면 그녀가 사생아를 낳았던 개인의 경험이 시로 표현될 때는 인간답지 못한 행위를 고발하는 시인으로서의 의무감을 행사해야한다는 이론이다.

이 나라가 사생아라면  
 첫 출산을 하고서  
 신음하는 여인을 버리고  
 달아난  
 비열한 어머니의 농락자가  
 제발 돌아 와  
 제 사랑하는 아이를 달라고 하리라.  
 그 생명의  
 첫 시간을 위해  
 간청하는 법적인 이름을 주라.

If this country ia a bastard  
 will the lowdown mother user  
 who ran off  
 and left the woman

moaning in her  
 green delivery  
 please come back and claim  
 his love child  
 Give a legal name to beg from  
 for the first  
 time of its life. (CCP "Request" 83)

나라가 주인이 없는 사생아라면 버리고 달아난 자가 돌아와 그 소유권을 주장 하겠지만 한 여인이 낳은 사생아를 찾는 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생명 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생명에게 법적인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은 나라를 소유 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매우 간결하게 전달되어 있다. 또한 이 시 에는 마야 자신의 아픈 체험이 “첫 출산”(green delivery)이라는 표현에 잘 나 타나 있다. 특히 “green”이라는 단어는 10대로서 당시 감당하기 힘든 마야의 체 험을 잘 보여주는 색깔 이미지이다.

그녀에게 시는 춤과 함께 리듬을 통해 삶의 아픔을 극복하게 한 훌륭한 매체 였다. 시는 마야의 언어에 대한 재능을 표출하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의 의무를 다하는 삶의 목적을 지향하게 한 만큼 그녀에게 시각 활동은 실존의 한 방편이었다. 그녀는 시 창작을 통해 언어와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원 했던 만큼 시 창작 활동 그 자체마저도 하나의 인간적인 수련의 방법으로 활용한 다. 그녀는 일단 창작을 시작하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가장 단순한 삶으로 생활의 반경을 축소한 후 창작에 몰두하는 독특한 창작 습관을 가지고 있다. 창작이라는 자기를 비우기 작업을 위해 실제로 그녀는 삶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시작의 과정을 인격의 수련기간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창작 과정을 거쳐 작품이 세상에 나오면서 그녀는 그 작품으로부터, 그리고 그 작품 속에 실린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이 러한 창작을 통한 자아 성숙의 경주는 그녀의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 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라는 신앙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마야가 자신을 겁탈했던 인간의 행위는 밋지만 그도 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에 사랑해야한다 는 고백은 결코 위선의 제스처가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창작의 비우기 작업의

결과에서 얻은 지혜의 고백이었다. 이처럼 그녀의 문학 행위는 그녀의 삶의 지평을 범 인류적으로 펼쳐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흑인의 민족성과 인종적인 특성과 환경 그리고 마야 자신의 성격적인 자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쩌면 그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이라는 생태적인 조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인 마야에게 그녀의 불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흑인과 백인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운한 삶을 예견할 수 있다. 실제로 마야는 할머니가 사는 아칸소주에서 3K단원들의 흑인 폭행을 보면서 자랐기에 그녀의 눈에는 백인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마야가 가진 백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벽은 개인의 힘으로 쉽게 깰 수 있는 큰 장벽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백인 사회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불가항력의 상황이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인간 승리를 얻게 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녀가 흑인 특유의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사고와 웃음 그리고 우수한 리듬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웃음과 유머로 그리고 경쾌한 춤으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흑인 특유의 인종적 특성은 그녀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고 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춤과 기지가 뛰어난 분이었기에 타고난 성격적인 특성이 편모슬하의 성장 속에서 더욱 강화된 셈이다. 마야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feminist) 보다는 “여권주의자”(womanist)로 명명하는 이유가 페미니스트들이 ‘유머’와 인간적인 사랑이 부족하여 삶의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발언(182)에서도 그녀는 그녀가 얼마나 유머를 중요시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유머의 참 의미가 인생의 부조화를 웃음으로 포용하는 능력이라는 스피러(Spiller 114)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마야에게 유머와 웃음은 그녀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무수한 모순과 괴리 내지는 부조화의 아픔으로 좌절하기보다는 그러한 인생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를 웃음으로 소화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시는 웃음과 유머로 자신의 고통스런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마야의 삶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웃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  
나의 삶은 하나의 위대하고 커다란 농담이었다.  
걷는 춤이었고  
말하는 노래였다  
나가 나를 생각하면  
너무 웃어서 거의 숨이 막힌다

이 민족의 삶 속에서 60년  
내가 돌본 아이가 나를 소녀라 부르고  
나는 일을 위해 “네, 마님”이라 대답한다.  
너무 거만하여 굽힐 수 없고  
너무 가난해서 켈 수도 없으니  
내가 나를 생각하면  
배가 아플 때까지 웃는다.

나의 백성은 나의 옆구리를 찢게 할 수 있다.  
너무 심하게 웃어서 나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직 거짓말 같다  
그들은 과일나무를 키우지만  
껍질만 먹는다.  
내가 내 민족을 생각하면  
울 때까지 나는 웃는다.

When I think about myself,  
I almost laugh myself to death,  
My life has been one great big joke,  
A dance that's walked,  
A song that's spoke,  
I laugh so hard I almost choke,  
When I think about myself.

Sixty years in these folks' world,  
The child I works for calls me girl,  
I say "Yes ma' am" for working's sake.  
Too proud to bend,  
Too poor to break,  
I laugh until my stomach ache,  
When I think about myself.

My folks can make me split my side,  
I laughed so hard I nearly died,  
The tales they tell sound just like lying,  
They grow the fruit,  
But eat the rind,  
I laugh until I start to crying,  
When I think about my folks. ("When I think of myself" 29)

이처럼 흑인이라는 그녀의 민족적인 애환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나 이로 인해 좌절하기보다는 웃음으로 그리고 농담으로이기는 방법을 그녀는 선택한다. 그리고 이러한 포용력은 결국 그녀의 불굴의 도전력과 용기와 결합하여 어떠한 불행이라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록 결혼의 가정이었으나 그녀의 가족들은 늘 흑인 특유의 가족애로 16세의 미혼모와 사생아를 받아 안았고 그녀 혼자 아기를 키우겠다는 결단을 갖게 했다(Conversations 111). 특히 그녀의 외조모는 마야처럼 6피트 체구의 여장부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와 외가를 오가는 마야를 교육시켰고 그녀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이를 실현하는 용기를 심어 주었다. 8살의 마야가 강간을 당하고 외가댁에 다시 맡겨졌을 때 더구나 거의 5년간 그로 인한 충격으로 실어증에 시달릴 때에도 손녀딸의 머리를 빗겨 주면서 "이 할미는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할미는 사람들이 너를 틀림없는 백치거나 멍텅구리라고 말해도 개의치 않아. 야야, 웬지 아니? 이 할미는 너와 선하신 주님이 언젠가 너를 설교자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Tanner Lecture)라는 따뜻한 위로로 거의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꿈을 갖게 하였다. 후일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흑인들의 지혜와 가족

애에 대해 감사하면서 매우 역설적인 해석을 내린다. 즉 흑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과 흑인들에게 오히려 생존을 위한 불굴의 의지와 인내를 심어주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을 포용하는 사랑의 힘을 주었다는 것이다. 흑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한다. 흑인의 열악한 사회에서는 모든 일을 여성이 도맡아 일해야 하는 삶이 오히려 백인사회와는 달리 흑인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는 역설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116-17).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이 백인으로부터 받은 멸시와 오욕의 삶은 오히려 흑인 민족에게 스스로는 낮추는 겸손과 인내와 생존을 위한 불굴의 의지라는 미덕을 키우는 훈련의 기간이 된 셈이다. 그녀의 표현대로 미국에서의 흑인들의 삶의 역사는 “봉사자의 역사”(the history of servers)이었으나 이로 인한 고난은 그들에게 지구력과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부여하였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기에 그녀가 바라보는 “아프리카”와 “미국”은 과거에는 피지배와 지배와 그리고 인내와 오만으로 대립된 관계를 만들어 왔으나 오히려 앞으로는 역전의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얀 바다 너머  
 회고 찬 서리가  
 난폭한 약탈자가  
 대담한 고드름이  
 그녀의 어린 딸들을 데려갔고  
 그녀의 튼튼한 아들들을 팔았고  
 그녀를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데려갔고  
 총으로 피를 흘리게 했다.  
 그렇게 그녀는 누워있었다.

지금 그녀는 일어나고 있다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라  
 패배들을 기억하라  
 엄청나고 헛된 그녀의 비명을  
 그녀의 부유함을 기억하라  
 살해된 그녀의 역사를

비록 그녀는 누워있었으나  
지금 그녀는 활보하고 있다.

Over the white seas  
rime white and cold  
brigands ungentled  
icicle bold  
took her young daughters  
sold her strong sons  
churched her with Jesus  
bled her with guns.  
Thus she has lain.

Now she is rising  
remember her pain  
remember the losses  
her screams loud and vain  
remember her riches  
her history slain  
now she is striding  
although she had lain. ("Africa" 84)

아프리카 흑인들을 팔아 넘긴 무자비한 약탈자를 마야는 계절적인 이미지인 서리, 고드름 등으로 표현한다. 그들의 삶의 역사를 불가항력의 운명으로 돌리려는 마야의 암시적 의미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짓밟혀 누워있던 아프리카가 지금은 아픔과 패배를 사랑과 용서로 이기신 예수를 만나 회생의 삶을 찾아 일어서게 되었음을 매우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역설의 논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이신다는 기독교의 교리와 일치한다. 청교도였던 외할머니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은 마야는 “나는 어느 곳도 하나님 없이 없는 곳이 없다고 확고히 믿는 신앙인이다”(Conversations 50)라고 고백할 만큼 매우 독실한 신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경직된 교리에 묶여있는

청교도의 편협한 믿음이 아니라 늘 그녀의 사고와 마음을 사랑의 근원으로 열어 놓는 열림의 신앙이었다. 십대의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울 때 그녀의 양육방법에서도 그녀의 열린 신앙관이 잘 나타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녀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체로 품어 키우려고 애쓴다. 그녀의 신앙은 타인의 삶에 희망을 주는 ‘무지개’의 역할을 하도록 스스로에게 종용한다. 1997년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웨버 대학의 연설문에서 그녀는 “태양이 더 이상 비취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When it looked like the sun wasn't going to shine anymore, God put a rainbow in the clouds.)라는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세운 ‘무지개’를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적용하여 비록 현재의 삶이 어둡고 비관적인 구름으로 덮여 있다 해도 반드시 그 속에 희망의 무지개가 있게 마련이며 누구나 우리는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무지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한다(Tanner Lecture). 이러한 충고는 인간의 삶이 서로 사랑과 희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근거한 것이며 마야는 타인에게 무지개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시적 삶’(a poetic life)으로 정의하여(112) 자신의 시작 활동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녀에게 “시”는 문학활동의 한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매 순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동시에 “인간이 만든 것이든 아니든 인간 사이의 장벽들을 수용하는 것이며 인간 역사의 비극이나 공격 때문에, 언어와 습관, 나아가서 인종적인 차이로 인해서 생긴 장벽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시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을 거의 동일시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으면서 그녀의 삶의 목적을 타인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신앙적 결단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은 보석과 같은 시를 그리고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대가 모질고 뒤틀린 거짓말로  
 나를 역사 속에 기록할 수 있겠지  
 그대 나를 흙 속에 짓밟을 수 있어도  
 나는 다시 먼지처럼 일어날거야.

내가 뻔뻔해서 그대 화났는가?

왜 그대 우울하여 괴로워하는가?  
내가 내 거실에 기름 샘이 있어  
마구 퍼 올리듯 당당하게 걷기 때문이지.

달처럼 해처럼  
변함없는 조수처럼  
힘껏 솟는 희망처럼  
나는 일어날거야.

그대는 내가 낙심한 모습보고 싶겠지?  
고개를 떨구고 눈은 내리깔고서?  
어깨는 눈물처럼 아래로 축 처지고  
내 애절한 울부짖음으로 힘을 잃고서.

내가 뻔뻔하여 그대 기분이 상했는가?  
그대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지 않지  
내 뒷마당에 금광이 있어  
계속 캐고 있는 양 웃으니까.

그대는 나에게 말을 쏟아낼 수도 있지  
눈으로 나를 난도질 할 수도 있어  
그대의 증오로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공기처럼 다시 일어나겠어.

내 성적 매력이 그대를 화나게 했는가?  
내 허벅지를 비벼서  
다이아몬드를 얻은 듯 춤을 추니  
깜짝 놀랐어?

역사의 수치스런 헛간에서  
나는 일어설 테야  
고통 속에 뿌리를 내린 과거로부터  
나는 분명히 일어설 테야.

나는 검은 바다, 출렁이면서 넓게  
쫓구치고 치솟으며 파도에 나를 맡기지.

공포와 두려움을 뒤로 한 채  
나는 일어서리라  
놀랍도록 투명한 새벽 속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의 조상이 물려준 선물을 가지고  
나는 노예의 꿈이며 희망이다.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You may write me down in history  
With your bitter, twisted lies,  
You may trod me in the very dirt  
But still, like dust, I'll rise.

Does my sassiness upset you?  
Why are you beset with gloom?  
'Cause I walk like I've got oil wells  
Pumping in my living room.

Just like moons and like suns,  
With the certainty of tides,  
Just like hopes springing high,  
Still I'll rise.

Did you want to see me broken?  
Bowed head and lowered eyes?  
Shoulders falling down like teardrops,  
Weakened by my soulful cries?

Does my haughtiness offend you?  
Don't you take it awful hard  
'Cause I laugh like I've got gold mines  
Diggin' in my own backyard.

You may shoot me with your words,  
You may cut me with your eyes,  
You may kill me with your hatefulness,  
But still, like air, I'll rise.

Does my sexiness upset you?  
Does it come as a surprise  
That I dance like I've got diamonds  
At the meeting of my thighs?

Out of the huts of history's shame  
I rise  
Up from a past that's rooted in pain  
I rise  
I'm a black ocean, leaping and wide,  
Welling and swelling I bear in the tide.

Leaving behind nights of terror and fear  
I rise  
Into a daybreak that's wondrously clear  
I rise  
Bringing the gifts that my ancestors gave,  
I am the dream and the hope of the slave.  
I rise  
I rise  
I rise. ("Still I Will Rise" 163)

비록 백인 사회에게 인간 이하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해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공기’처럼 분연히 일어서리라는 반복적인 다짐은 어쩌면 자신과 흑인 민족을 향한 그리고 동시에 미국을 향한 마야의 절규라 할 수 있다. 그녀가 “노예의 꿈과 희망”이라고 밝힌 정체성을 바로 흑인사회에 그리고 미국 사회에 무지개의 의무를 다 하겠다는 숭고한 신앙적 다짐이다.

마야는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아프리카 원주민에게서 발견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미국 시민으로 밝히는 까닭은 미국이야말로 오늘의 마야를 만들고 키운 나라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며 또 능력에 따라 결과를 인정하는 미국 사회의 장점을 마야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오늘의 자기를 만들어준 미국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다. 시인 마야의 타고난 불굴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늘 따뜻하게 품어준 흑인 특유의 가정적 울타리, 그리고 유머와 웃음으로 터득한 인내와 긍정적인 사고는 인류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책임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녀의 신앙과 그리고 그것에 뿌리를 둔 시적 삶과 결합하여 그녀의 어둡고 고통스런 삶을 헤치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오늘의 마야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조상을 확대하고 멸시한 미국의 백인을 미움으로 갚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 겸손과 인내를 가진 모습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한 동인으로 포용하는 성숙함을 통해 흑인과 얽힌 미국 역사를 끌어안고 승리한다. 그녀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낭송한 축시는 하나님을 믿을 위에 미래로 개척할 새 날을 열어가자는 소망을 미국 시민의 한사람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대, 터키인, 스웨덴인, 독일인, 스코트인들이여...  
 그대 아산티인, 요구바인, 크루인을 사들이고  
 팔고, 훔쳐서, 꿈을 위해 기도하며  
 악몽에 이른 그대들이여

너 자신 여기 내 옆에 뿌리를 내려라.  
 나는 결코 옮겨지지 않을  
 물가에 심은 나무이다.

나는 바위, 나는 강, 나는 나무  
나는 너의 것—너희 통행은 값이 치러졌다.  
너희 얼굴을 들어라, 너는 너를 위해 동터오는  
이 환한 아침을 간절히 요구한다.  
역사는 비록 비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지 않을 수는 없으며, 일단  
용기로 맞으면 다시 살 필요가 없다.

너의 눈을 들어  
너를 위해 동터오는 날을 보라.  
다시 꿈을  
놓으라.

여인들, 아이들, 남자들이여,  
당신의 손바닥으로 꿈을 잡아라.  
그것을 너의 가장 사사로운 필요의  
모양대로 맞추어 빚어라. 너의 가장 공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조각하라.  
너의 가슴을 들어라  
새로운 시간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잡아라.  
영원히 두려움과 연합하지  
말라, 영원히 야만적인 것에  
매이지 말라.

수평선이 몸을 앞으로 밀어  
너에게 변화의 새로운 발걸음을  
놓을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 이 고동치는 좋은 날에  
너는 나, 바위, 강, 나무, 너의 나라를  
올려 볼 용기를 가질 수 있으리라.  
가난한 자나 부자에게나.

옛적의 마스토돈 동물만이 아니라 현재의 너에게도.

여기 고동치는 이 새 날에  
너는 눈을 들어 그대의 여동생의 눈을,  
너의 남동생의 얼굴을, 너의 나라를  
올려다보고  
단지  
그저 단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아침이라 말하는  
관대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

You, the Turk, the Arab, the Swede,  
The German, the Eskimo, the Scot,  
The Italian, the Hungarian, the Pole,  
You the Ashanti, the Yoruba, the Kru. bought,  
Sold, stolen, arriving on a nightmare,  
Praying for a dream.

Here, root yourselves beside me.  
I am that Tree planted by the River,  
Which will not be moved.  
I, the Rock, I, the River I, the Tree,  
I am yours—your passages have been paid.  
Lift up your faces, you have a piercing need  
For this bright morning dawning for you.  
History, despite its wrenching pain,  
Cannot be unlived, but if faced  
With courage, need not be lived again.

Lift up your eyes  
Upon this day breaking for you.

Give birth again  
To the dream.

Women, children, men,  
Take it into the palms of your hands,  
Mold it into the shape of your most  
Private need. Sculpt it into  
The image of your most public self.  
Lift up your hearts.  
Each new hour holds new chances  
For a new beginning.  
Do not be wedded forever  
To fear, yoked eternally  
To brutishness.

The horizon leans forward,  
Offering you space  
To place new steps of change.  
Here, on the pulse of this fine day,  
You may have the courage  
To look up and out and upon me,  
The Rock, the River, the Tree, your country.  
No less to Midas than the mendicant.  
No less to you now than the mastodon then.

Here, on the pulse of this new day,  
You may have the grace to look up and out  
And into your sister's eyes,  
And into your brother's face,  
Your country,  
And say simply  
Very simply

With hope--

Good morning. ("On the Pulse of Morning," 272-3)

여기서 바위와 물과 나무는 성경에서 인유한 이미지들이다. 바위가 하나님의 임재라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서 모든 인종을 하나로 끌어안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새 날을 향해 전진하자라는 그녀의 호소는 바로 그녀 자신의 인생관을 그리고 미국 역사의 방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것은 시인 마야 자신과 국가에 바라는 열망이기도 하다. 이러한 축시를 마야는 미국 시민을 대표하여 낭송함으로써 그녀의 열린 삶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Angelou, Maya. *The Complete Collected Poems of Maya Angelou*.  
New York: Random House, 1994. CCP로 표기함.
- Elliot, Jeffrey M. (Ed). *Conversations with Maya Angelou*. Jackson:  
The Mississippi UP, 1998.
- Lupton, Mary Jane. *Maya Angelou: A Critical Companion*. Westport:  
Greenword Press, 1998.
- Spiller, Robert E.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An Essay in  
Historical Critic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 “The Distinguished Annie Clark Tanner Lecture”  
<http://departments.weber.edu/.../angelouspeech.htm>
- “An Interview with Maya Angelou by David Frost”  
<http://www.newsun.com/angelou.html>,
- Anderson, John. “Living Well, Living Good,”  
<http://www.cs.umanitoba.ca/~andersj/livewell.html>
- “Biography Information,”  
<http://www.maytaangelou.com/LongBio.html>

Abstract

## Maya Angelou: The Miracle of Opening

Myong Ok Kim

This article is to elaborate a modern black woman writer, Maya Angelou, especially her miraculous life as a black writer. She was born in the divorced family and raped at 8 by her mother's friend and at 16 she gave birth to a bastard but now she is teaching in the Wake Forest University and has become a famous speaker as well as a well known writer. I have surveyed what could transform herself from an unhappy black girl to an influential popular writer as well as speaker .

First, she could overcome her environmental barriers with writing biographies and poems. Writing her life stories in poems and autobiographies she always tried to disclose her dark, shameful experiences to the public and with such continuous opening she has succeeded in freeing herself from her past. And her inborn humorous temper and familial love unique as a black people and most of all, her Christian belief helped her break the negative barriers such as inferiority complex and prejudices caused by the color difference as well as the gender discrimination. Especially her faith in Christ brought her and her people good merits such as endurance and serving mind, which resulted in embracing the white neighbors with Christ's love. All those have contributed to giving her a positive thinking and to opening herself to the publics with warm heartedness to be Maya Angelou of today.

key words : Maya Angelou, electricity, womanist, familial love, the history of servers,

주제어 : 마야 앤젤로우, 전류, 여권주의자, 가족애, 봉사자의 역사